



새해에는
올바로 보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2개월 후 육계값을 kg당 천원으로 보았는데 결과는 400원 밖에 안했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잘못본 것이다.

요새 많이 쓰이는 관측(觀測)이란 말도 앞을 내다본다는 뜻인데 돼지가격의 경우에 앞을 잘못 보았다고 농민의 원성을 산적이 몇번 있었다.

계량경제학이 나오면서 앞을 내다보는데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정확히 보려고 하지만 잘못 볼 때가 많이 있다.

가격전망도 중요하지만 양계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배합사료 수입개방에 이어 7월 1일부터 축산물 가공품이 개방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국내 육가공업계는 원료육의 개방없이 완제품의 개방은 순서가 바뀐 것이니 원료육을 개방하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배합사료를 개방할 때 들던 소리와 같은 소리이다. 벌써 금년도 후반기 이후의 일이 훤히 보이고 있다.

업계와 정부가 보는 것이 다를 때 불협화음이 생긴다.

어떻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일까? 우선 내부를 보고 외부를 보아야 된다. 국내 양계산업의 현 위치를 올바르게 보고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운용정책과 국제관계를 보아야 바로 볼 수 있다.

내부만을 볼 경우에는 생산조절, 허가제, 쿼터제 등으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주력하게 되며, 밖을 볼 때에는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유통효율 제고 등에 힘을 쏟게 된다.

다음으로 앞과 뒤를 보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는 앞을 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뒤를 보고 과거를 음미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실패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다. 뒤를 올바르게 보아야 앞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을 함께

볼 수 있다.

끝으로 위를 보고 아래를 보아야 한다. 대규모 최신식시설도 보아야 하지만 영세하고 낙후된 시설과 사양관리도 볼 줄 알아야 자기형편에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입견을 버리고 바로 보아야 한다. 정묘년 새해에는 모든 것을 바로 보기를 바란다.

양계산물의 수요량과 공급량, 배합사료의 필요량과 원료가격의 변화를 바로보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로보자.

왜! 생산비를 더 절감하지 못하는가를 바로 보고 어떻게 하여야 할까를 바로 보자. 그리고 민감하게 변화하는 국내의 형편을 똑바로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본 것을 함께 모여 의견교환을 하므로써 더 정확히 앞을 보자. 전문가가 보는 것을 들어보자. 항상 내가 보는 것이 옳다는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은 잘못 볼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묘년 새해에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실천해서 양계산업이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양계산업 안정되는 한해가 되기를

금년도 벼농사의 수확량 최종집계가 3,893만섬으로 발표되었다.

81년 이후 6년 계속 풍년이라고 한다. 이제는 쌀이 수요량보다도 많이 생산됨으로써 혼식장려란 말이 자취를 감추었고 농수산부는 쌀소비를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쌀을 원료로한 가공식품 소비홍보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매년 쌀을 수입하던 우리가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이렇게 자급하고도 남게 되는데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경지정리사업은 벼농사의 기계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농협이 계열주체가 되어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를 통합하므로써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농민은 생산만 하면 농협이 수매를 하여주고 수매가격은 정부에서 생산비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정해주고 있다.

농협외에도 지역적으로 정미소에서 이양기, 수확기 등 필요한 농기계를 준비하여 논(밭)만 가지고 있는 농민과 계약하에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인 서로의 신뢰로 이루어진다.) 농사를 대행해주고 생산된 벼는 정미소에서 도정 판매하여주고 남은 돈만 통장에 입금시켜준다.

이제는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농사를 대신해주



는 회사가 점차 늘어나 농촌이 변하고 있다.

축산업계도 낙농의 경우에는 유가공업체가 계열주체가 되어 모든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된 우유를 전량 판매해주고 생산자와 계열주체간에 가장 마찰의 소지가 큰 우유가격은 역시 정부가 개입해서 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안정이 지난 23년간 우유 소비량이 338.9배 증가하게 만들었고 낙농산업의 안정과 유가공업체의 소비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계산업도 이제는 생산만을 생각할 수 없도록 되었다. 생산을 위한 전방산업인 사료, 동물약품, 기계기구 생산업과 생산물을 처리 가공 보관 유통시키는 2~3차 산업과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발전이 아닌 상대적 낙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해부터는 벼농사와 낙농에서 보여준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발전의지가 양계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

흙은 거짓이 없다 **土心오골계**

- 오골계는 특징이 뚜렷한 품종이어야(관두 5 발 · 흑색피부)
- 농원 · 유원지의 상비 토산식품
- 동남아인의 기호식품
- 약용에서 대중식품으로

* 육추의 어려움을 대신해 드립니다.

모든 계종 분양함(초생추 · 중추 · 성계 · 종계)

오골계 전문 취급농장

土心농장

제 1 농장 :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1167- 4

전화 : 0344 - 62 - 8027

제 2 농장 :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동패리 산12- 14

전화 : 0348 - 2 - 8639